

영아기 정서와 기질,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

정 옥 분¹⁾ Rubin, Kenneth. H.²⁾ 박 성 연³⁾ 윤 중 회⁴⁾ 도 현 심⁵⁾ 김 경 은⁶⁾
고려대학교 메릴랜드주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영아기에 관찰을 통해 측정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려움 및 4세 때 관찰을 통해 측정한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 영아기에 측정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려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차년도인 만 2세 때에 시작된 단기 종단연구에 참여했던 113명의 아동 중 3차년도인 만 4세 연구에 참여해 준 21명(남아 10명, 여아 11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행동역제 실험절차를 통해 2세 영아의 정서를 측정하였고,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가 보고한 Goldsmith(1996)의 TBAQ를 통해 측정하였다. Rubin과 McKinnon(1994)의 부모자녀관계 실험실(Laboratory For the Study of Child and Family Relationships)절차를 이용하여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Rubin 등(1997)의 또래상황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4세 아동이 또래상호작용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영아기의 정서 및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질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하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집단탐색놀이에는 2세 때의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대화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통제, 2세 때의 긍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웃거림 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와 2세 때의 청얼거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4세 유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영아기 정서, 기질, 사회적 두려움,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관찰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2) 메릴랜드주립대학교 인간발달학과 교수

3)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아동학과 협동과정 교수

4)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아동학과 협동과정 교수

6)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leejay48@cho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생 초기 영아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가 주를 이루지만, 유아기에는 활동 환경이 넓어지면서 부모뿐 아니라 교사, 또래 등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특히 유아들은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다른 또래나 주변의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Bovey & Strain 2003, Ostrosky & Meadan, 2010). 일례로, 유아들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서, 또래들과 좋아하는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기 위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유아들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기 위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유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이다(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Rubin, Bukowski, & Parker, 1998).

또래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놀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놀이 상황에서 관찰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아주 어린 영아기부터 시작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이 시기 영아들의 놀이는 혼자 놀거나 다른 아동의 놀이를 구경하는 등의 비사회적 놀이를 주로 하게 된다. 하지만 돌이 지나고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다(Holmberg, 1980). 이후 15~18개월의 영아는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거

나 장난감을 주고받는 등 진정한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3~4세가 되면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놀이를 구성하고 주제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놀이를 진행하게 된다. 협동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수월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유아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들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놀이를 유발하며,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은 사회화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는다(Fantuzzo et al., 1998). 즉, 유아는 놀이 상호작용 동안 또래 유아의 의견, 태도,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0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관찰해 보면, 어떤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놀이에 잘 참여하고 몰입하며 또래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반면, 다른 유아들은 위축되어 있고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해 놀이장면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유아들은 놀이를 방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Rubin 등(1998)은 또래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유아의 행동 특성으로 친사회성, 공격성, 위축행동과 관련된 언어 및 비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유사하게 Fantuzzo 등(1995)은 유아또래상호작용을 또래 간의 친사회적 및 긍정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놀이상호작용’과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놀이와해’와 위축적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는 ‘놀이단절’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또래상호작용은 또래 간에 발생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또래들과의 집단놀이에 초점을 두어 인지적 놀이(기능놀이, 구성놀이, 탐색놀이, 가상놀이), 비사회적 행동(대화, 기웃거림, 공격성) 측면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수평적 특성을 지니며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Hartup & Moor, 1990). 이 시기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Hartup, 2005).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는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래로 하여금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을 줄여주는 긍정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동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 준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Howes & Leslie, 1998).

이러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특히 영아의 정서 및 기질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영아기 정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영아기에 부정적인 정서가 높았던 영아는 이후에 억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정서가 높았던 영아는 이후에 접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ox, 1994).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대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행복한 사람은 자주 미소 짓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Izard & Ackerman, 2000).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거부되거나 공격적인 아동들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한다(Hubbard, 2001). 역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는 아동들은 또래들과의 놀이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뚜렷한 개인차를 나타내는 아동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아동의 행동과 성격발달에 있어 개인차의 근원으로 여겨진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기질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등을 포함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Goldsmith(1996)는 기질을 활동수준, 사회적 두려움, 화를 잘냄, 쾌활함, 관심도/지구력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질 요인 중 특히,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두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두려움은 비사회적인 행동이나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els 종단연구에 따르면, 두려움이 높은 유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위축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gan, 1989). 이러한 기질은 전생애에 걸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1세 때의 위축된 아동은 12세가 되어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탈 가능성이 높다(Kail, 2006). 뉴욕종단연구 중 기질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부끄럽고 위축된 기질의 아동은 이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문

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Shepard, Fabes, Murphy, & Guthrie., 1998; Kochanska & Radke-Yarrow, 1992). 이처럼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기질의 유아는 또래와의 협동놀이나 집단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몇몇 국외연구들을 통해 영아의 정서 및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정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양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종단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어머니와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긍정적’ ‘불안한’ ‘분노’ 정서와 ‘사회적 두려움’ 기질이 이후의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머니의 애정과 반응성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게 되고(Cummings & Davies, 1994) 또래들로부터 잘 수용된다(Balck & Logan, 1995). 부모의 애정과 표현성은 아동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적응을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hou, Eisenberg, Losoya, Fabes, Reiser, & Guthrie, 2002).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때, 유아는 또래와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파

괴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어머니가 자녀를 덜 애정적으로 대하거나 과하게 지시적이거나 체벌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는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지며(Stafford & Bayer, 1993) 공격성이나 적대성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Rubin, Burgess, Dwyer, & Hastings, 2003).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능력의 발달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관찰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찰연구 시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유아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이는 긍정적 정서 및 통제, 민감성을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또한 유아들의 자유놀이에서 나타나는 실제 또래상호작용을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에 관찰을 통해 측정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려움 및 4세 때 관찰을 통해 측정한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 영아기에 측정한 영아의 정서, 사회적 두려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사회적 두려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사회적 두려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차년동안 만 2세 때에 시작된 단기 종단연구에 참여했던 113명의 아동 중 3차년도인 만 4세 연구에 참여해 준 21명(남아 10명, 여아 11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및 그 주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의 아동으로 평균연령은 48.3개월($SD=1.13$)이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8($SD=2.34$)세였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피험자탈락률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편파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3차 년도에 실시한 부모 자녀관계 실험절차와 또래상호작용 실험절차까지 모두 참여한 21명과 1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집단(82명)간에 유아의 성별($\chi^2=.95$, $p>.05$), 어머니의 교육정도($\chi^2=1.80$, $p>.05$), 어머니의 직업지위($\chi^2=1.15$, $p>.05$)와 아버지의 직업지위($\chi^2=4.58$, $p>.05$)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2세 때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2세 영아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실 절차는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1, 자유놀이 2, 자유놀이 3 에피소드만을 활용하여(전체 에피소드는 정옥분, Rubin,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참조) 분석하였다. 자유놀이 1, 자유놀이 2, 자유놀이 3 에피소드는 대학실험실에 영아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영아의 정서를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영아의 억제되거나 불안하고 경계하는 상태를 '침얼거림'으로, 강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화'로, 웃고 있거나 기분 좋은 정서를 '긍정'으로 측정하였다. 유아의 정서를 10초 단위의 시간표집법으로 그 정서의 표현 유무를 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에피소드는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정서 코딩은 7명의 관찰자 훈련 후(관찰자 간 신뢰도 .87) 각 관찰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분류기준을 토대로 자유놀이 1, 2, 3에서 각각의 정서가 나타난 빈도를 합산하였다.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가 보고한 Goldsmith (1996)의 TBAQ를 통해 측정하였다. TBAQ는 활동수준, 사회적 두려움, 화를 잘냄, 쾌활함, 관심도/지구력의 5가지 기질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두려움'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4

였다.

4세 때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구절차. 4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ubin과 McKinnon(1994)의 부모자녀관계 실험실(Laboratory For the Study of Child and Family Relationships)절차에 기초하여 실험상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1, 자유놀이 2, 자유놀이 3에서 나타나는 행동만을 사용하였다. MWCS(Mother Warmth and Control Scale)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 통제, 민감성,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긍정적 통제, 민감성만을 포함하였다. 어머니가 자유놀이 상황 동안 유아에게 따뜻하고, 즐거우며 유쾌한 감정을 드러낼 경우 ‘긍정적인 정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적절히 자극을 줌으로써 유아가 하고 있는 활동을 보다 지원해 줄 경우 ‘긍정적 통제’, 유아가 어머니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민감성’ 점수를 부여한다. 위의 행동 특성을 10초 단위의 시간표집법으로 그 유무 및 정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각 관찰자료 코딩에 들어가기 전 3개월 동안 3명에게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고 관찰자 간 신뢰도가 90%가 되었을 때 각 관찰자들은 본 코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또래상호작용 연구절차. 4세 아동이 또래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과 Chen(1997)의 또래상황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실험상황을 구성하였다. 또래상황 패러다임의 또래집단 구성은 2세 때 Kagan 패러다임에 따라 측정한 행동억제점수를 기초로 행동억제 점수가 높은(상위 25%) 아동 1명과 행동억제정도가 보통(중간 50%)인 아동 2명, 행동억제정도가 낮은(하위 25%) 아동 1명을 포함하여 같은 성별의 아동 총 4명으로 이루어진다. 각 조에 속한 4명의 아동은 같은 시간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약 60분에 걸친 6개의 에피소드(자유놀이 1과 자유놀이 2 및 과제수행 에피소드 4개)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위해서는 POS(Play Observation Scale)에 따라 위의 6가지 내용 중 자유놀이 1(15분)과 자유놀이 2(15분)에 나타나는 행동만을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POS는 또래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사회적 놀이, 인지적 놀이, 비사회적 행동 측면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10초 단위의 시간표집법으로 그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관찰자는 비몰입행동, 방관적 행동,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 대화 등의 범주에 따라 아동의 행동을 구분한 후,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 각각에 대해 기능적, 가상적, 구성적 및 탐색적 행동을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부차적으로 기웃거림과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기웃거림은 대상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 가까이에서 맴돌며 다른 아동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만 놀이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여기저기 배회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비몰입행동이나 다른 아동들의 행동을 다소 멀리서 쳐다보는 방관적 행동과는 구별된다. 본 관찰자료

코딩 전 약 2주 간에 걸쳐 6명을 대상으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관찰자 훈련과정에서 관찰자간 신뢰도가 .75 이상이 되었을 때, 각 관찰자들은 본 코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놀이에 초점을 두어, 집단기능놀이, 집단탐색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가상놀이, 대화, 기웃거림, 공격성만을 포함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1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대상자 간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

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세 때 영아의 정서 중 긍정적 정서는 기웃거림

표 1. 영아기 정서, 기질, 어머니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

		집단놀이				대화	기웃거림	공격성
		집단기능	집단구성	집단탐색	집단가상			
2세 정서	칭얼거림	-.21	.02	.21	.14	.07	.33	-.10
	화	-.18	.03	-.14	.13	.05	.16	-.01
2세 기질	긍정적 정서	.06	-.02	.18	-.16	.10	.37+	-.09
	사회적 두려움	.24	-.16	-.45*	-.16	-.28	.33	-.25
4세 어머니 양육	긍정적 통제	-.32	-.14	.09	-.40+	-.10	.46*	-.54*
	긍정적 정서	-.23	-.21	.21	-.10	.51*	.08	-.32
	민감성	.25	.43+	.33	-.19	.42+	.12	-.16

* $p < .05$, + $p < .10$

($r=.37, p<.10$)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2세 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였을수록 4세 때 또래상호작용에서 비사회적 행동인 기웃거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세 때 영아의 기질 중 사회적 두려움은 집단탐색놀이($r=-.45, p<.05$)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2세 때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이 높았을수록 4세 때 또래상호작용에서 탐색놀이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세 때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통제는 유아의 공격성($r=-.54, p<.05$)과 집단가상놀이($r=-.40, p<.10$)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기웃거림($r=.46, p<.05$)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또래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을 덜 나타냈고, 가상놀이에는 덜 참여하였으며, 비사회적인 행동인 기웃거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유아의 대화($r=.51, p<.05$)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민감성은 집단구성놀이($r=.43, p<.10$) 및 대화($r=.42, p<.10$)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또래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대할수록 또래와 구성놀이 및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기질, 4세 때 어머니

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VIF 값이 1에 가깝고(1.03~1.72), 공차가 1에 가까워(.53~.99)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계수도 2에 가까워(1.52~2.61)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하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집단탐색놀이, 대화, 공격성, 기웃거림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나 집단기능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가상놀이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탐색놀이에는 2세 때의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이 집단탐색놀이의 21%와, 18%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때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이 적고, 4세 때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탐색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대화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통제, 2세 때의 긍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이 대화의 19%, 26%,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때 어머니가 유아에게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지만 긍정적 통제는 덜 가하고, 2세 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낸 유아일수록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대화를 많이 하

표 2. 영아기 정서, 기질, 어머니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ΔR^2	F
집단탐색놀이	2세 사회적 두려움	-1.81	-.57**	.21	.21	5.84*
	어머니의 민감성	.24	.48*	.39	.18	
대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2.54	.95***	.19	.19	8.13**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	-2.40	-.79**	.45	.26	
	2세 긍정적정서	2.41	.43*	.59	.14	
기웃거림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	2.61	.55*	.21	.21	5.46**
	2세 불안 정서	.91	.44*	.39	.18	
공격성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	-.20	-.53*	.29	.29	7.93**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웃거림 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와 2세 때의 칭얼거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이 21%와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때 어머니가 유아에게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하고 2세 때 불안한 정서를 많이 표현한 유아일수록 또래들과의 놀이에 기웃거리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공격성의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통제를 많이 가할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에 측정한 영아의 정서와 기질(사회적 두려움), 4세 때의 어머니 양육태

도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변인들이 또래상호작용의 질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의 정서 및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질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움은 유아기의 또래상호작용에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정서 중 부정적 정서인 '칭얼거림'과 '화'는 4세 때의 또래상호작용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는 또래상호작용의 질과는 부적인 상관(Hubbard, 2001; 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 & Tomich, 2000)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횡단연구의 결과이므로 해석

상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몇몇 종단연구에서 초기의 부정적 정서가 이후의 행동억제(Kagan, Reznick, & Snidman., 1988)나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Lengua, West, & Sandler, 1998)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행동억제나 우울 등은 주로 아동의 개인 내적인 측면을 다루는 개념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영아의 초기 정서가 유아기 사회성의 직접적인 척도인 또래상호작용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아의 초기 부정적 정서가 이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일례로, 2세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했더라도 이후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유아가 4세 때가 되었을 때에는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였을 수도 있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이후 유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혹은 유지되지 않느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아기 특성과 이후의 아동 발달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종단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개 혹은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성연, 송주현, Rubin, 2008; Cipriano & Stifter, 2010;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다른 한편으로는 4세 정도가 되면 유아의 정서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칭얼거림’이나 ‘화’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상황에 맞게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유아의 정서이해 및 조절능력의 발달은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의 표출을 억제할 수도 있다. 한편, 2세 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인 유아일수록 4세 때 또래상호작용에서 비사회적 행동인 기웃거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웃거림은 다른 또래들 가까이에서 맴돌며 다른 또래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만 놀이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사회적인 행동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의 긍정적인 정서가 이후의 상호작용에서 접근행동을 예측하고(Fox, 1994) 아동이 긍정적인 정서가 높으면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등의 행동억제가 낮고(박성연, 1998) 또래들 간의 관계에서 잘 수용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영아기의 긍정적 정서가 유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영아기의 긍정적 정서가 4세 때의 기웃거림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영아기의 정서뿐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기 특성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간의 통합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영아기에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이 높았던 유아는 4세 때 또래상호작용에서 탐색놀이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 기질이 다소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

며(Kagan, 1989; Wachs & Bates, 2001),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박성연, 1998; Eisenberg et al., 1998; Rothbart, Derryberry, & Hershey, 2000)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동이 기질적으로 사회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낮은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정옥분 외, 2002). 영아의 기질적인 사회적 두려움은 위축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Kagan, 1989) 위축성향이 높은 유아는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 하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임으로써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사회적 두려움이 낮은 유아는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반면,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기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두려움으로 인해 위축된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Zhou et al.,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가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또래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을 덜 나타냈고, 또래들과의 가상놀이는 적게 하였으며, 비사회적인 행동인 기웃거

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격성 간에 부적의 상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Hart, Olsen, Robinson, & Mandlco, 1997; Maccoby & Martin, 1983; Rubin, Stewart, & Chen, 1995)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도하거나 통제를 하게 될 경우,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상놀이를 덜 하게 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가상놀이는 유아의 표상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상놀이를 통해 유아는 타인의 생각이나 신념, 감정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Lindsey & Colwell, 2003). 또한 가상놀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주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호랑이가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지만, 가상놀이 상황에서는 호랑이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상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표상을 가지고 그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자녀에게 긍정적이지만 지도나 통제를 많이 하게 될 경우 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가상놀이의 내용이나 형식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만큼,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성, 기질 등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또래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대할수록 또래와 구성놀이 및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때,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2세 때 영아의 정서 및 사회적 두려움, 4세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하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집단탐색놀이, 대화, 공격성, 기웃거림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나 집단기능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가상놀이에 대해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탐색놀이에는 2세 때의 사회적 두려움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호기심과 상상력이 왕성한 시기로 주변 환경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영아기의 사회적 두려움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유아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사회적 두려움이 낮은 유아는 또래들과의 탐색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유아는 또래들과의 탐색놀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아의 집단탐색놀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두려움이 높은 유아들에게 민감하고 애정적이며 반응성 있는 양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부모가 유아에게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사결정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지원을 제공해 줄 경우, 유아는 더욱 더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Parke et al., 2004).

또래와의 대화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통제, 2세 때의 긍정적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이 아동의 사회정서, 인지,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ornstein & Tamis-LeMonda, 1989; Olson, Bates, & Bayles, 1984). 특히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ndry, Smith, & Swank, 2006). 어머니가 유아와 긍정적으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유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아 또한 어머니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 행동 및 언어가 유아에게 전달되고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 행동 및 언어가 어머니와 또래에게 전달되는 순환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기웃거림 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와 2세 때의 칭얼거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웃거림 행동은 또래와 어울리고 싶지만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사회적 행동으로, 2세 때의 부정적 정서가 유아의 부적응적인 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Fox, 1994). 영아기에 억제되고 불안해하는 정

서를 가졌던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맴도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웃거림과 같은 비사회적 행동은 또래관계 단절 혹은 또래관계로부터의 소외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양육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유아의 기웃거림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으로 유아가 기웃거림 행동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 부모가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거나 또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에 관한 사회적 기술들을 가르쳐줄 때 아동은 또래와 더 잘 지내게 된다(Ladd & Pettit, 200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4세 유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과 유아의 공격성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Hart, Olsen, Robinson, & Mandlco, 1997; Maccoby & Martin, 1983; Rubin, Stewart, & Chen, 1995)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아의 정서와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 일례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도 및 통제가 유아의 공격성을 낮추는지, 혹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로 유발된 유아의 공격성이 어머니가 긍정적인 지도 및 통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태도나 영아의 정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아닌 직접 관찰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영아기의 기질 및 정서적 특성이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강점을 지닌다. 추후 종단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발달의 지속성 혹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단연구의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많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3년차 연구대상자가 1년차 연구대상자와 일반적인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종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어머니와 중도 포기하는 어머니 간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혹은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까지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종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만큼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족의 영유아발달에 관한 지표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본의 부족으로 인해 영아의 초기 변인들과 유아기 변인들 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영아의 성별, 정서 및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성연 (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박성연, 송주현, K. H. Rubin(2008). 4세 아동의 단독행동 하위유형들과 행동억제 및 양육 행동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29, 4, 97-113.
- 정옥분, Rubin, K. H.,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Black, B., & Logan, A. (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6, 255-271.
- Bornstein, M., & Tamis-LeMonda, C. S. (1989).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 In M. H. Bornstein (Ed.), *Maternal responsivenes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pp.49 - 61). San Francisco: Jossey-Bass.
- Bovey, T., & Strain. P. (2003). *Promoting positive peer social interactions*. Center on the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s for Early Learning. www.vanderbilt.edu/csefel.
- Cipriano, E. A., & Stifter, C. A. (2010). Predicting preschool effortful control from todd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3), 221-230.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111-124.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Shepard, S. A., Fabes, R. A., Murphy, B. C., & Guthrie, I. K. (1998). Shyness and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coping: Contemporaneous, longitudinal, and across-context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2, 518-534.
- Fantuzzo, J. W.,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antuzzo, J. W.,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Fox, N. A. (1994). Dynamic cerebral processes underling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 (Ed.),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 Goldsmith, H. H. (1996). Studying temperament via construction of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67(1), 218-235.
- Hart, C. H., Olsen, S. F., Robinson, C. C., & Mandleco, B. L. (1997).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Review and a model of personal, familial, and extra familial processes. In B. R. Burleson (Ed.), *Communication yearbook*, (Vol. 20, pp. 169 - .208). Thousand Oaks, CA: Sage.
- Hartup, W. W. (2005).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Where do we stand? In R. E. Tremblay, W. W. Hartup, & J. Archer (Ed.), *Developmental origins of aggression*. Guilford; New York. 3-22.
- Hartup, W. W., & Moor, S. G. (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tion and prognostic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1-7.
- Holmberg, M. C. (1980).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rchange patterns from 12 to 42 months. *Child Development*, 51, 448-456.
- Howes, C., & Leslie, P. (1998). Continuity in children's relations with peers. *Social Development*, 98, 340-349.
-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5), 1426-1438.
- Izard, C. E., & Ackerman, B. P. (2000). Motivational, organizational, and regulatory functions of discrete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 pp.253-264). New York: Guilford.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April 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ail, R. V. (2006).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4th ed.). Prentice Hall.
- Kochanska, G., & Radke-Yarrow, M. (1992). Early childhood inhibition and the dynamics of the child's interaction with an unfamiliar peer at age five. *Child Development*, 63, 325-335.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Stein, L. C., & Gregory, K. (200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4th ed.). NewYork: Delmar.
- Ladd, G. W., & Pettit, G. S. (2002).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69-309) (2nd ed.). Mahwah, NJ: Erlbaum.
- Landry, S. H., Smith, K. E., & Swank, P. R. (2006). Responsive parenting: Establishing early foundations for social, communication, and independent problem-solv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627-642.

- Lengua, L. J., West, S. G., & Sandler, I. N. (1998).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symptomatology in children: Addressing contamination of measures. *Child Development*, 69, 164-181.
- Lindsey, E. W., & Colwell, M. J. (2003).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Links to pretend and physical play. *Child Study Journal*, 33, 39-52.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 (198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cognitive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66-179.
- Ostrosky, M. M., & Meadan, H. (2010). Helping children play and learn together. *Young Children*, 65(1), 104-110.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arke, R. D., Coltrane, S., Duffy, S., Buriel, R., Dennis, J., & Powers, J. (2004). Economic stress,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in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5, 1632-1656.
- Rose-Krasnor, L., Rubin, K. H., Booth, C. L., & Coplan, R. J. (1996). Maternal directiven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309-325.
- Rothbart M. K., Derryberry, D., & Hershey, K., (2000). Stability of temperament in childhood: Laboratory infant assessment to parent report at 7 years. In Molfese V, Molfese D, editors. *Tempera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J: Erlbaum. 85 - 120.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NY: John Wiley & Sons.
- Rubin, K. H., Bukowski, W. M.,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Damon, W., Lerner, R. M., Eisenberg, N., editors. *Th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 New York: Wiley. 571-645.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 164-176.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Rubin, K. H., & McKinnon, J. (1994). *The parental warmth and control scale*. Unpublished coding manual, University of Waterloo, Waterloo, Ontario, Canada.
 - Rubin, K. H., Stewart, S. L.,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Children and parenting*, (Vol. 1, pp. 225 - .284). Mahwah, NJ: Erlbaum.
 - Schneider, B. H., Atkinson, L., & Tardif, C. (2001). Child-parent attachment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A quantitative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7, 86-100.
 - Stafford, L., & Bayer, C. (1993).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Newbury Park, CA: Sage Publishers.
 - Stright, A. D., Gallagher, K. C.,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Wachs, T. D., & Bates, J. E. (2001). Temperament. In G. Bemner and A Fogel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465-501).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ers.
 - Zhou, Q., Eisenberg, N., Losoya, S. H., Fabes, R. A., Reiser, M., & Guthrie, I. K. (2002).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 893-915.
- 1차 원고접수 : 2011. 1. 11
수정원고접수 : 2011. 2. 18
최종게재결정 : 2011. 3. 2

Infant emotions, temperament and mother's posi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the quality of peer interaction at age 4

Ock-Boon, Chung

Korea University

Rubin, K. H.

University of Maryland

Seong-Yeo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Chong-Hee Yoon

Dongduk Women's University

Hyun-Shim Doh

Ewha Womans University

Kyoung-Eun Kim

Namseoul University

A three-year longitudinal design was used to test whether infant emotion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would predict the quality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 at age 4. At time point I, 113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through the Traditional Inhibition Paradigm; at time point II, 21 children aged 4 were observed undertaking interaction tasks with unfamiliar peers as well as their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emotions, temperament and maternal positive parenting at age 2 were partially linked to the quality of peer interactions at age 4: Lower levels of social fearfulness and the greater sensitivity of mothers at age 2 predicted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group exploration play at age 4. Maternal positive parenting and infant positive emotions at age 2 predicted children's levels of conversation and ability with their peers. A mother's positive control and infant negative emotions predicted their children's nonsocial behavior and mother's positive control predicted children's aggression. The importance of early emotional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maternal parenting as a means of predicting children's subsequent social development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infant emotion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the quality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 observation, longitudinal design